

이제는 소액투자자도 자산관리를 모바일로

두나무투자일임, 국내 첫 모바일 '맵' 선보일 예정 거래금액 낮추고 자문사 비교선택... 규제완화 관련

모바일 개인자산관리 시대가 곧 본격화 될 전망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의 자회사 두나무투자일임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모바일 자산관리서비스 '맵'(MAP·Managed Account by Professional)을 선보일 예정이다.

재력가가 아닌 일반 소액 투자자도 전문 자문사로부터 자산 운용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모바일 개인자산관리 서비스는 종이 문서와 담당 직원 면담을 없애 점이 특징이다. 모바일로 제휴 자문사 성과의 특징을 비교할 수도 있다. 기존에는 투자 정보를 얻기 어려워 입소문에 의해 자문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이 투자일임(投資一任)에 대한 규제를 얼마나 완화하는지가 관건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온라인 자문회사 설립을 허가하고, 컴퓨터 프로그램만으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대면 일임계약은 제한된다. 자산관리사가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위험에 대한 태도 등을 대면으로 판단해 상품을 추천해야한다는 '적합성의 원칙' 때문이다.

두나무투자일임은 이같은 제약에도 모바일 자산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카카오를 기반의 모바일 소셜 증권투자 앱 '증권플러스'를 서비스하는 두나무의 자회사다.

두나무는 포털 다음의 금융 페이지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증권플러스는 관심 종목 시세를 간편하게 보여주는 기능과 카카오를 친구목록을 연동했다.

지인이나 투자 고수들의 투자 방법을 공유하고, 누가 더 수익을 잘 냈는지 겨루는 재미가 있다. 이같은 소셜 특징이 모바일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증권플러스는 출시 2년만인 지난 1월 누적 거래액 5조원과 누적 다운로드 100만건을 달성했다.

증권플러스 성공에 힘입어 두나무는 모바일 자산관리 시장에도 도전장을 냈다. 두나무는 금융권의 비대면 일임계약 규제가 완화되는 대로 약 2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MAP 서비스를 정식 오픈할 계획이다.

최근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송치형 두나무 대표는 MAP을 '인방 TV(모바일)로 감성하는 오픈(자산관리)'에 비유했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1호차 허가 기념식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안내동 앞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제1호차 허가 기념식에 자율주행차가 주차되어 있다.

MAP 제휴 투자 자문사는 삼성자산운용·리임자산운용·피데스자산운용·퍼시픽투자자문·앤드비온드투자자문·씨티투자자문·제브라투자자문·이룸투자자문·HN투자자문·더블리투투자자문·KPI 어드바이저 등 국내 대표 자문사 11곳이다.

지금까지 자문사를 이용하려면 통상 1억 원의 여유돈이 있어야 했다. 억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수천만원의 맡겨야 제대로 된 자산관리서비스가 가능했다.

송 대표는 "MAP 거래금액 500만원은 모바일 자산관리의 대중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다. 최소 거래 금액은 자문사 전략에 따라 달라지는데 삼성전자 주식같은

대형 투자만 아니라면 50만원만 있어도 이용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은 MAP에 등록된 투자자문사의 전략과 포트폴리오 성과를 비교해 마음에 드는 투자자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AP은 자문사 선정부터 계약까지 모바일로 해결한다. 자산을 맡기려는 개인 투자자는 증권플러스 앱을 설치한 후 '투자맵'을 눌러 MAP 서비스를 실행시키면 된다.

이후 MAP에서 두나무투자일임과 투자일임 계약을 맺고 본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로그인한다. 투자자문사 11곳의 서비스를 비교·선택해 원하는 규모의 투자금을 입금하면 마무리된다.

보험금 부당하게 심사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앞으로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 시기를 부당하게 늦추거나 거절 또는 삭감하게 되면 금전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지 못하거나 금액이 삭감되는 경우 보험사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5조 2항은 보험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해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5조에 의해 금융위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법은 그간 금융기관과 보험회사만을 다루던 법체계, 회사와 보험 계약자를 규율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은 강력 범죄와 연계돼 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 방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보험금 지급 지연 등에 대한 조항은 그간 규제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월 외환보유액 낙달째 감소... 약 3658억 달러

2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낙 달째 감소해 약 3658억 달러를 기록했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2월 말 외환보유액'은 3657억6000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15억4000만 달러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은 운용수익과 환율 움직임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감소한 것은 유로화와 파운드화 등 기타 통화와 약세를 보이면서 이들 통화포지 자산의 미 달러화 환산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제 2월 중 서울 외국환중개회사 고시환율 기준에 따르면 미 달러 대비 유로화는 0.3% 절하됐고, 파운드화는 3.5% 절하됐다.

자산 유형별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채와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MBS·ABS) 등 유가증권(92.0%)이 3365억 달러로 전월대비 1억 달러 증가했다.

반면 예치금과 특별인출권(SDR)은 각각 12억2000만 달러와 8억8000만 달러가 줄어 2022억5000만 달러와 23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국제통화기금(IMF) 포지션과 금은 각각 18억7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4억6000만 달러 늘었고, 금은 47억9000만 달러로 전달과 같았다.

한편 지난 1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3673억 달러)는 중국과 일본, 스위스,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러시아에 이어 7위의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금융권 민원 7% 줄어

손해보험 소비자 불만은 늘어

지난해 금융업권 전반에 제기된 민원 건수가 전년 대비 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손해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늘었고, 금융투자와 카드업계도 전산 사고 등에 따른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금융민원은 7만3094건으로 전년보다 5537건 감소했다. 이 가운데 분쟁민원은 2만 2974건으로 같은 기간 15.1% 줄었다.

금융민원과 상담, 상숙인 조회 등 접수 건수는 모두 73만3789건으로 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리 인하 기조로 대출 취급에 관한 문제 제기가 감소하는 한편 2014년 신용카드 사태 때 급증했던 민원도 다소 진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해석했다.

반면 보험업권에서는 손해를 악화로 인수 및 지급 심사가 강화되고 실손보험의 경쟁형 보험료가 오르는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 민원이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기간 손해보험 9개사의 민원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민원제기 건수는 ▲삼성화재 4290건 ▲현대해상 3842건 ▲동부화재 3485건 ▲KB손해보험 3214건 순이었다.

생명보험사 가운데서 민원이 늘었던 곳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으로 각각 전년 대비 14.5%, 1.1% 증가한 3890건, 2104건을 기록했다.

은행업계에 대한 소비자 민원은 대출 신규취급과 만기연장 거절에 관한 민원이 줄면서 모든 회사의 민원이 감소 전년 대비 16.4% 줄어든 9684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평가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전주출고센터 새단장

고객대상 운전과 점검법 교육 등 '맞춤 서비스' 제공

현대자동차(주)가 상용차 고객을 위해 전주출고센터의 시설을 확충하고, 출고 고객 대상 드라이빙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현대자동차 상용차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자동차 전주출고센터는 1층의 고객 대기공간을 정비하고, 고객이 대기하는 동안 이용 가능한 헬스케어존, 실내골프장, TV/인터넷 리운지 등 편의시설을 확충했으며, 고객이 외부에서 차량을 받는 지점에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천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고객 편의에 초점을 맞춰 실내외 공간을 전면 재배치하고 새단장했다.

전주출고센터는 차량을 직접 인도받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센터를 방문하는 상용차 고객이 대부분인데, 이런 고객들은 장거리를 이동하다 보니 차량 인도 예정 시각보다 일찍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

상용차의 경우 인도 전 세차·검수 작업을 위한 고객 대기시간이 승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소요되기 때문에, 고객이 기다리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휴게시설을 확충하는데 주안점을 두 시설을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출고센터 2층에 차량 출고 고객을 위해 차량 사용법, 연비 운전법, 실차 점검 교육을 진행하는 드라이빙 아카데미를 새롭게 운영한다.

드라이빙 아카데미는 고객에게 구매 차량의 제품 및 첨단 사양 등을 안내해 고객의 차량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불어 체계적인 연비 운전법 교육으로 고객에게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보탬이 되고자 기획되었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